

苦行과 救援

—The Power and the Glory와 The Assistant에서

張 炳 吉

I

人間이 救援을 얻을 수 있는 것은 苦行(suffering)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 라는 것은 宗教에서 중요한 教理中的 하나¹⁾가 되어 있는 터이고, 이 문제를 놓고 文學作品으로 표현한 것도 많이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苦行이 人間の 條件 乃至는 人間の 成長을 위해서 중요한 役割을 차지하고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筆者는 20세기의 40年代와 50年代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두 作家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Graham Greene의 *The Power and the Glory* (1940)와 Bernard Malamud의 *The Assistant* (1957)를 읽으면서 그것의 共通點으로서의 苦行과 救援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이 두 作品이 Dostoyevsky의 영향을 많이 받고 쓰여진 것임에 틀림없다고 느껴져서 이들을 比較해 보고자 한다.

Dostoyevsky(1821~81)의 *Crime and Punishment* (1866)을 읽어보면 苦行(suffering)이야말로 救援(salvation)을 얻을 수 있는 唯一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信仰의 經驗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強調가 病的인 것으로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Dostoyevsky는 8年間이나 Siberia에 流刑당한 經驗²⁾과 또 Russian Orthodox Church의 敬虔한 信仰心에 의해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러시아 正教會는 suffering과 humiliation을 強調했으며, 이것은 犯罪者가 社會에 대한 빚을 갚는 方法으로서가 아니고, Christian이 예수를 모방한다는 뜻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自意的인 屈辱(乃至는 苦行)에 대한 神學的인 用語는 kenosis

1) 신약에서는 1st Peter 2:18-25, 3:14-18, 4:12-19; Romans 8:18-25 등에서 볼 수 있고, 불교에서도 忍辱苦行이란 말과 더불어 많이 논의되고 있음.

2) John Bunyan이 *The Pilgrim's Progress*를 쓴 것도 감옥에서 엮음.

(神性포기)라고 하는데 *Crime and Punishment*에서 예를 들면, 화가인 Nikolai가 오직 苦行을 위해서 虛偽告解를 하는 대목을 들 수 있겠고, Sonia의 kenosis는 매춘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 Sonia의 행위는 그녀에게 있어서는 罪가 아니며, “겸손한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고 한 Paul의 말을 例示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Marmeladov와 같은 grotesque한 masochist도 그 나름의 kenosis를 경험하고, 自身이 十字架에 못박히고 싶다고 말할 때, 예수와의 一致點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罪에도 불구하고, 거만한 그의 夫人—투쟁적이고 자신의 명예를 유지 하려는 노력을 하는—보다 救援에 더 가까운 것이다.

Russia正教會에서는 各個人이 모든 사람의 罪를 짊어짐으로써 神秘스런 救援을 얻을 수 있는 것이 教會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The Brothers Karamazov*에서 Dmitri의 경우도 또 하나의 例가 될 수 있다. 그는 술에 취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發作的이어서 萬事에 좋은 결과를 낳지는 못하지만 聖스러움을 갈망하기도 한다. 그는 쾌활하고 未熟하고 고상한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자주 賤하게 굴고, 自身이 그걸 알기도 한다. 난폭하고, 무슨 일을 저지르려는지 모르고, 사람을 피로하게 만든다. 그의 영혼은 善한 天使와 惡의 天使들이 싸우는 싸움터다. 逆說的일지 모르지만, 그의 罪 자체가 그의 救援의 方便이 된다. 자신이 얼마나 不道德한 사람인가를 認識하고 있다는 事實이 그를 懺悔로 인도하고, 이런 일은 자칭 義로운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Katya에게서 흠치고, Grigory를 때리고,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願했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는 罰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서서히 영적 갈등을 겪고 자신의 suffering을 받아들일 결심을 하는데, 이 suffering을 지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淨罪를 위한 一時的인 苦行의 場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聖書에 “한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리라”고 일컬어진 것과 비슷한 過程인 것이다.

Dostoyevsky는 그의 *Notes from Underground*에서 主人公의 입을 통해 suffering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fter all, perhaps prosperity isn't the only thing that pleases mankind, perhaps he is just as attracted to suffering. Perhaps suffering is just as good for him as prosperity. Sometimes a man is intensely,

even passionately, attracted to suffering—that is a fact.

About this there is no need to consult universal history;.....
Suffering—after all, that is the sole cause of consciousness. Although I declared to begin with that in my opinion consciousness is man's supreme misfortune, I know that man loves it and would not change it for any gratification.³⁾

Dostoyevsky는 Christian이었으므로 人間의 道德的 責任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따라서 人間性에 대한 연약한 optimism을 단연코 배격한다. 그는 도덕적 惡行이 不利한 環境의 結果라고 설명하는 社會哲學이나, 環境을 調節함으로써 人間의 죄를 없애려는 사회철학등을 완전히 배격한다. 그의 主張에 의하면 하늘 나라는 社會의 改良事業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寬容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 合理主義는 惡이고, 그것은 憎惡보다도 더 人間愛에 害롭다는 것이 그의 생각인 것이다.

Dostoyevsky 자신은 또 罰을 통해 모든 罪惡의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으며 따라서 그는 迫放者와 겸손한 者와 가난한 者에게 깊은 同情을 갖고 있기도 했다.

Francois Mauriac은 Greene을 偉大한 小說家라고 칭찬했으며,⁴⁾ 그는 또 Greene의 小說이 대개 “은총이 죄인에게”(the utilization of sin by Grace)라는 主題에 관한 것이 많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Greene을 正確하게 본 것이다. Dostoyevsky와 마찬가지로 Greene은 神의 은총이, 모욕받고, 박해받는 사람, 거의 絶望에 빠져있지만 信仰을 어렵게나마 지켜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비참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 우선 *The Power and the Glory*의 이야기를 간추리면서 앞에서 말한 suffering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930年代에 Mexico에는 反宗教的인 共產黨政府가 들어서 과거의 모든 聖職者들이 殺害당하거나, 迫放당하거나, 그들의 職分을 버리도록 強要당한다. 그 중의 한사람인 호세 神父는 성질이 고약한 아내를 얻어 사

3) Fyodor Dostoyevsky, *Notes from Underground*, translated by Jessie Coulson, Penguin, p. 41.

4) Philip Stradford, ed., *The Portable Graham Greene*, pp. 552-553.

람들의 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처럼 카톨릭教를 우롱거리로 만든 공로(?)로 Mexico 정부는 그에게 年金을 주기도 한다.

이럴 적에 어떤 神父 한 사람이 그 지방에 남아서 은밀히 聖事를 베풀고, 告解를 듣고, 미사를 올리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다. 열렬한 革命分子인 한 警衛는 그 지방에서 마지막으로 神父노릇을 하고 있는 그 者를 붙잡아 死刑시키기로 결심한다. 호세 神父처럼 많은 신부들이, 假面을 쓰고 국민을 속여왔다고 그는 믿고 있다. 그들이 정말로 천당과 지옥을 믿고 있다면 지금의 조그마한 苦痛을 잊을 수 있는 것이다.

It showed the deception they had practised all these years. For if they really believed in heaven or hell, they wouldn't mind a little pain now, in return for what immensities..... The lieutenant, lying on his hard bed, in the damp hot dark, felt no sympathy at all with the weakness of the flesh.⁵⁾

이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위 자신은 神父 못지 않게 淸教徒的인 생활을 하고 있다.

숨어다니고 있는 그 神父는 자신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안전한 Veracruz市로 가는 배에 경찰의 눈을 피해 타려고 한다. 그러나 고독한 (alienated) 영국인 齒科醫 Mr. Tench를 만나고 乘船하려던 直前に 한 少年이 찾아와서 죽어가는 자기 어머니를 보아달라고 간청해 온다. 神父는 망설이지만 결국은 그 소년의 집까지 조랑말을 타고 감으로써 避身하는 일을 一時나마 포기하는 것이다. 그 女人의 죽음은 바로 Mexico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는 동안 경위는 경찰서 벽에다 두 장의 사진을 부쳐놓았다. 그 중 하나는 神父의 것인데, 젊었을 때의 행복했던 時節의 사진이고, 또 하나는 Mexico의 어디엔가에 숨어 있는 殺人犯(미국인)의 것이다. 그들중에서 경위는 神父를 잡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는 Mexico에서 聖職者들이 없어져야만,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不正腐弊를 미워하며, 투쟁목표도 뚜렷하다 못해 grotesque 하기까지 느껴지며, 고독한 영웅같기도 하다.

5) Graham Greene, *The Power and the Glory*, Penguin, p. 25,

He stood with his hand on his holster and watched the brown intent patient eyes: it was for these he was fighting. He would eliminate from their childhood everything which had made him miserable, all that was poor, superstitious, and corrupt. They deserved nothing less than the truth—a vacant universe and a cooling world, the right to be happy in any way they choose. He was quite prepared to make a massacre for their sakes—even his own chief would one day have to go. He wanted to begin the world again with them, in a desert.⁶⁾

그는 그 神父가 목고 가는데도 申告가 들어오지 않으면, 人質을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마을에서 人質을 미리 잡아다 두자고 서장에게 말하고 허가를 얻는다. 이처럼 그 경위의 증오감 내지는 집념이 철저하다.

술에 중독이 되어 있어 whiskey priest로만 알려진 이 神父는 Captain Fellows의 외딴 바나나 농장에 잠시 피신한다. 이 사람은 그리 행복하지 못한 영국인인데, 그 딸인 Coral은 父母 몰래, 神父를 숨겨주고, 맥주도, 갖다 주며, 自己는 10세 때, 신앙을 잃었노라고 말하고, 神父에게 도망가라고 권한다.

“Good-bye,” she said, “I hope you’ll escape.” A faint sign came out of the darkness: she said gently, “If they kill you, I shan’t forgive them—ever.” She was ready to accept any responsibility, even that of vengeance, without a second thought. It was her life.⁷⁾

Whiskey priest는 이 少女에게 큰 췌가 올라 두려워서 다시 나귀를 타고, 어려운 길을 떠난다. 神父가 가고 난 뒤 Coral은 神父가 있던 자리에서 무수히 그려져 있는 十字架를 발견하고 女性다운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Then the torch lit the back wall: low down near the ground some-

6) *Ibid.*, p. 58.

7) *Ibid.*, p. 42.

body had scrawled in chalk—she came closer: a lot of little crosses leant in the circle of light. He must have lain down among the bananas and tried—mechanically—to relieve his fear by writing something, and this was all he could think of. The child stood in her woman's pain and looked at them: a horrible novelty enclosed her whole morning: it was as if today everything was memorable.⁸⁾

Whiskey priest는 前에 간음한 적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Brigida라는 딸까지 두게 되었는데 그 女人 Maria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 되돌아 온다. 神父가 絶對孤獨(desperate loneliness)을 느낀 죄악의 한 순간에 Maria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Maria는 남과 다름없는 Priest에게 그래도 하루 밤 묵어가게 한다. Brigida는 아버지를 알아 볼 리 없고, 사나운 성질을 보인다. Coral과 비교해 볼 때 오래지 않아, 그의 딸이 나이가 들면서 죄에 빠지리라고 Priest는 느낀다. 새벽이 되기 前에, 마을 사람들에게 은밀히 미사를 올리게 해 준다. 이때, 설교를 통해, 고통은 기쁨의 一部이며, 天國은 바로 이 곳에 있다고 말한다.

He said, "One of the Fathers has told us that joy always depends on pain. Pain is part of joy. We are hungry and then think how we enjoy our food at last. We deny ourselves so that we can enjoy. You have heard of rich men in the north who eat salted foods, so that they can be thirsty.... This is why I tell you that heaven is here: this is a part of heaven just as pain is a part of pleasure. Pray that you will suffer more and more and more. Never get tired of suffering.... Heaven is where there is no jefe, no unjust laws, no taxes, no soldiers and no hunger. Your children do not die in heaven... You will never be afraid there—or unsafe. There are no Red Shirts. Nobody grows old. The crops never fail. Oh, it is easy to say all the things that there will not be in heaven: What is there is God."⁹⁾

8) *Ibid.*, pp. 54-55.

9) *Ibid.*, pp. 69-70.

고통 속에 있는 그는 僞善의 감정없이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

..., one more mortification squeezed out of their harsh and painful lives. He felt humbled by the pain ordinary men bore voluntarily; his pain was forced on him. 'Oh Lord, I have loved the beauty of thy house.... For a matter of seconds he felt an immense satisfaction that he could talk of suffering to them now without hypocrisy—it is hard for the sleek and well-fed priest to praise poverty.'¹⁰⁾

미사가 채 끝나기도 前에 경찰들이 도착한다. Maria는 그가 자기 남편이라고 말하고 Brigida는 father라고 말한다. 이 말을 아버지란 뜻보다 神父라는 뜻으로 말했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그는 경찰서 벽에 붙어 있는 통통하고 만족한 표정의 청년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경위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 동네에서도 人質로 끌려간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神父를 밀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前教區인 Concepcion에서 잡혀간 또 한명의 人質이 射殺당한 것을 알고, 그는 놀라며, 이 인질 대신에 自身이 가겠다고 나서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를 말리고, 제발 떠나거나 하라고 간청한다.

또 다시 그는 당나귀를 타고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난다. 그러나 곧 고약한 mestizo(혼혈인)가 현상금을 노리고 그를 근처 Carmen 마을까지 따라온다. 그 mestizo는 자기가 善良한 카톨릭 信者라고 맹세하지만 700페소의 현상금 때문에 자기를 경찰에 밀고할 것이라는 것을 神父는 안다. 그는 유다와 같은 存在다. 神父는 그를 저주하지 않는다. 그 mestizo의 가난이 극도에 달해 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 神父는 자기가 순교자인 척하는 것은 사실은 devilish pride 때문이라고 반성하며 고민한다.

No, if he had been humble like Padre José, he might be living in the capital now with Maria on a pension. This was pride, devilish pride, lying here offering his shirt to the man who wanted to betray him. Even his attempts at escape had been half-hearted because of his pride—the sin by which the angels fell. When he was the only

10) *Ibid.*, pp. 70-71.

priest left in the state his pride had been all the greater; he thought himself the devil of a fellow carrying God around at the risk of his life; one day there would be a reward.¹¹⁾

神父는 그 mestizo를 一時 따돌리고 꽤 큰 마을까지 와서 포도주를 찾기 위해 안간 힘을 쓴다.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며, 미사를 드리는데 필요하기도 하다. 포도주는 求하지 못하고 어느 부패한 관리로부터 密賣하는 브랜디를 사게 되었는데, 그는 포켓에 술 병을 넣고 다니다가 Red Shirts에 곧 붙들린다. 술은 宗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一面 淸教徒의인 禁慾主義者들로 구성된 이 공산국가에서 公的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러운 감옥에 들어가 神父는 罰金 낼 돈이 없어서 대신 감방청소를 하게 된다. 함께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가 神父라는 것을 알지만 그를 배반하지 않는다. 그는 그곳에서 일종의 同志愛를 느낀다. 또 고통의 아름다움도 느낀다.

Saints talk about the beauty of suffering. Well, we are not saints, you and I. Suffering to us is just ugly. Stench and crowding and pain. That is beautiful in that corner—to them. It needs a lot of learning to see things with a saint's eye: a saint gets a subtle taste for beauty and can look down on poor ignorant palates like theirs. But we can't afford to.¹²⁾

감방에서 경찰의 '손님'으로 와 있는 mestizo를 만난다. 그러나 그 mestizo도 그를 밀고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神父가 이미 잡혀있는 몸이고 보니 700페소의 현상금을 다 받을 수 없을까바서였다. 그는 감방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신앙심이 강한 채 하는, 구원받지 못할 女人을 만나기도 하고, 감옥이 세상의 縮圖임을 깨닫기도 한다.

...this place was very like the world elsewhere: people snatched at causes of pleasure and pride in cramped and disagreeable surroundings: there was no time to do anything worth doing, and always one

11) *Ibid.*, p. 95.

12) *Ibid.*, p. 130.

dreamed of escape...¹³⁾

그는 경위앞에 데려가지지만, 그를 경위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석방하면서 차비로 쓰도록 5페소를 그에게 주기까지 한다.

다시 길을 떠난 神父는 가난에 쪼들린 한 Indian女人을 만나는데, 그녀의 아이가 총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었다. 그 아이는 美國人깡의 人質로 잡혀 있다가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부상당한 것임을 신부는 알게 된다.

어머니의 간청에 따라 神父는 그 아이를 성당묘지에 묻고, 인기척이 드문 곳을 향해 죽을 힘을 다 해서 간다. 마침내 독일계 美國인 Luther교도인 Mr. Lehr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자기 농장에다 神父를 숨겨주지만, 카톨릭교와 그 代表格인 주정뱅이 神父에 대해서는 분명히 不滿을 표시한다. 며칠 묵은 뒤 神父는 건강이 회복되어 Las Cases의 安全한 곳으로 가기를 희망한다.

그가 막 떠나려 할 때, 그 mestizo가 또 나타나 카톨릭 信者인 美國인 깡이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儀式인 종부성사를 바라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함정인줄 알면서도 神父는 자기 계획을 취소하고, 그 mestizo와 함께 위험한 곳으로 갈 것을 결심한다. 이것이 主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들이 그 殺人者가 죽어가고 있는 오두막 집에 닿았을 때, 神父는 그의 告白을 들으려한다. 그러나 그 美國인은 아직도 미움에 불타서 神父에게 자기 권총을 빼 가라고 간청한다. 왜냐면, 그도 경찰이 밖에서 神父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殺人者가 죽었을 때, 경위가 오두막에 들어와서 神父를 체포한다. 그들은 함께 首都에 가서 그곳에서 神父는 處刑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될 것이다. 그곳까지의 여행중에 priest와 lieutenant는 suffering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한다. 경위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Well, we have ideas too,” the lieutenant was saying. “No more money for saying prayers, no more money for building places to say prayers in. We’ll give people food instead, teach them to read, give them books. We’ll see they don’t suffer.”

13) *Ibid.*, p. 133.

“But if they want to suffer....”

“A man may want to rape a woman. Are we to allow it because he wants to? Suffering is wrong.”

“And you suffer all the time,” the priest commented.¹⁴⁾

경위가 뜻하는 suffering은 가난에서 오는 것이고, priest가 말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

Perhaps it is. I've never got your ideas straight. We've always said the poor are blessed and the rich are going to find it hard to get into heaven. Why should we make it hard for the poor man too? Oh, I know we are told to give to the poor, to see they are not hungry—hunger can make a man do evil just as much as money can. But why should we give the poor power? It's better to let him die in dirt and wake in heaven—so long as we don't push his face in the dirt.¹⁵⁾

그 고통스런 여행 중에 경위는 神父의 겸손과 誠實性에 깊은 인상을 받고, 銃殺前에 호세神父의 종부성사를 받도록 해달라는 神父의 請을 허락해 준다. 경위가 호세神父를 데리러 왔을 때, 그 노인은 정부의 年金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그 請을 거절한다.

神父는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다음날 아침 銃殺刑을 받도록 宣告당한다. 마지막 날 저녁, 그는 죽음과 자기 罪가 두려우면서 運命에 맡기도록 애쓴다. 그는 다만 빈 손으로 하느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 두려울 따름이다.

What an impossible fellow I am, he thought, and how useless. I have done nothing for anybody. I might just as well have never lived. His parents were dead—soon he wouldn't even be a memory—perhaps after all he wasn't really Hell-worthy. Tears poured down his face: he was not at the moment afraid of damnation—even the

14) *Ibid.*, p. 194.

15) *Ibid.*, p. 199.

fear of pain was in the background. He felt only an immense disappointment because he had to go to God empty-handed, with nothing done at all.¹⁶⁾

그는 神父와 人間으로서 完全한 失敗者였다¹⁷⁾고 믿으며, 刑場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神父가 銃殺당한 날 저녁, 다른 神父가 그 마을에 은밀히 들어와서 그 少年의 영접을 받는다. 신부들을 비웃던 이 소년은 Whiskey priest의 克己力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이 神父의 비참해 보이는 苦行의 生活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罪와 타락에서 神의 힘과 榮光이 神祕롭게도 지켜진 것이다.

Whiskey priest는 그의 모든 결점과 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것, 즉 하느님의 慈悲와 사랑을 믿고, pride도 버리며, 神父의 영원한 역할을 믿고 苦行을 감수했기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¹⁸⁾

司祭는 안다——그가 罪와 苦行을 통해서 사랑하는 힘을 크게 했다는 사실을! 神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切感하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그의 罪를 깨끗이 씻어버린 다음에도 그는 겸손에 가득 찬다. 그래서 그는 하느님의 뜻이 自己의 運命을 決定해주시기만을 기다릴 뿐이다.¹⁹⁾

II.

이제는 Bernard Malamud의 작품 중에서 걸작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The Assistant*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작품을 *The Power and the Glory*와 비교하려는 이유는 두 작품이 다 함께 主題에 있어서 苦行과 救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또 둘 다 Dostoyevsky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The Assistant*에서는 *Crime and Punishment*에 대한 독후감이 나오기도 한다.²⁰⁾

*The Power and the Glory*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과 苦行의 분

16) *Ibid.*, p. 209.

17) *cf.* Malamud의 작품에 나오는 Schlemiel型 인간

18) Marie-Béatrice Mesnet, "Graham Greene and the Heart of the Matter", pp. 89-90.

19) 고석구, "G. Greene의 Salvation", 『영어영문학』, No. 59, p. 86.

20) Bernard Malamud, *The Assistant*, Penguin, p. 97.

위기가 充滿해 있는데 *The Assistant*에서도 tunnel같고 prison같기도 한 가게에서의 death in life같은 苦行과 또 희망이 主題가 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는 世俗적인 패배와 인간적인 승리가 공존하며 「믿음을 가진 비관론자」라고 별칭이 붙은 Malamud의 면모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²¹⁾

Shelton Norman Grebstein은 그의 論文—*Bernard Malamud and Jewish Movement*에서 苦行과 humanity의 可能性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With us (Americans), the suffering is meaningful. It can even be redemptive, stirring up a faint hope for the goodness of man after all. Jewish heroes may be *shlemiels* or *schlimazels* but unlike the major trend of much other contemporary fiction which depicts man as joke, cripple, or cipher, the Jewish American writer continues to emphasize the fundamental worth of life and the possibility of humanity. Yet he does not retreat into safe orthodoxy of formal religion. His affirmation is tough, qualified, secular. He is religious in that he portrays man as more than matter, but he is not pious.²²⁾

위의 글은 Jewish writer에 관한 말이지만, 이것이 Graham Greene의 경우와 매우 흡사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The Assistant*의 story를 따라가면서 ‘suffering과 그 救援’의 主題에 焦點을 맞추어 나가기로 한다.

육십 세 노인 Morris Bober는 多情하고 온순한 유대인인데 運數는 항상 나쁜 사람이고, Brooklyn의 貧民街에서 食品店을 가지고 있다. 때는 불경기²³⁾에서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살 정도이다.

Now, though he toiled the same hard hours, he was close to bankruptcy, his patience torn. In the past when hard times came he

21) 김종운, “버나드 맬라무드: 슬레미일과 神話”, 「現代美國小說研究」, 민중社, 1979, p. 252.

22) Shelton Norman Grebstein, “Bernard Malamud and the Jewish Movement”, in Leslie Field and Joyce Field, eds., *Bernard Malamud—Critical Essays*, New York, 1970, p. 20.

23) 이 소설의 출판은 1957년이지만 이야기의 무대는 1930년 경의 New York임.

had somehow lived through them, and when good times returned, they more or less returned to him. But now, since the appearance of H. Schmitz across the street ten months ago, all times were bad.²⁴⁾

그러한 어려운 상태이니 Morris의 유일한 樂이란 잠자는 것 뿐이다.

He finished the soup and went upstairs. The going up was easier than coming down. In the bedroom, sighing he drew down the black window shades. He was half asleep, so pleasant was the anticipation. Sleep was his one true refreshment; it excited him to go to sleep.²⁵⁾

그의 아내인 Ida는 그네들의 運數에 대해 늘 不平을 늘어놓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가게 보는 일을 옆에서 獻身的으로 돕는다. 그들의 딸인 Helen은 大學에 다니기를 갈망하고, 보다 화려하고 보다 나은 生活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꿈과는 달리, 秘書로 직장에 다니고 月給의 대부분은 가족의 生計를 돕기 위해 아버지께 드리고 있다. Helen의 苦惱도 꿈과 현실이 맞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이웃집에서 술장사가 잘 되고 있는 Karp이 어느날 밤, Morris에게 전 화로 경찰을 불러달라고 연락해 온다. 두 사나이가 그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품이 자기 가게를 털러 올 것 같다는 것이었다. Karp은 가게 문을 닫아 버리고 황급히 車를 타고 가버린다. 강도들은 그대신 Morris의 잡 화점에 들어온다. 그때 금전등록기에 십 오 달러가 있었는데 강도중의 하나가 나머지 돈을 더 내놓으라고 위협한다. 다른 청년은 가게 수입이 적겠으니 그냥 가자고 말하지만 먼저 청년이 권총으로 Morris의 머리를 내려친다. 같이 온 청년은 Morris를 부축하고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 Morris는 그 큰 손을 몽롱하게 보았지만 잊을 수가 없다.

Morris는 심한 부상을 입고, 일주일 동안 자리에 눕게 된다. 이 동안에 키가 크고 초라하고 우울해 보이는 청년 하나가 그 가게 근처를 배회한다. 그는 그 두 강도 中의 하나였던 Frank Alpine이다. 그는 강도질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으나 運나쁘게도 Ward Minogue를 만나게 되어 甘言利說로 꾀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Minogue는 정직한 경관인 아

24) Malamud, *The Assistant op. cit.*, p. 14.

25) *Ibid.*, p. 13.

버지와는 달리 강패였다. 그 아버지는 이 아들때문에 괴로워하고 외롭다. Frank는 Morris의 가게 근처 커피숍에서 잡지에 나온 St. Francis의 사진을 들여다 보고 있다가 호기심있게 쳐다보는 Sam에게 St. Francis의 淸貧과 苦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For instance, he gave everything away that he owned, every cent, all his clothes off his back. He said poverty was a queen, and he loved her like she was a beautiful woman.'

Sam shook his head. 'It ain't beautiful, kiddo. To be poor is dirty work.'

He took a fresh view of things.²⁶⁾

이제 Frank는 罪意識으로 지치고, Morris에게 야릇한 매력을 느끼기도 해서 自身の 罪를 補償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Morris가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Frank는 아침에 milk통을 들여다 주기도 하고, 가게 유리창을 닦아주기도 한다. 그는 Morris에게 돈은 필요없고, 일만 배우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Morris는 Ida의 만류도 있고 해서 Frank의 요청을 거절한다.

그러던 중 어느날 밤, Morris는 Frank가 자기 집 지하실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Morris가 가끔 깜박 잊고 잠그지 않은 문을 통해 지하실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Frank는 Morris의 가게에서 milk와 빵을 훔쳐서 수일 동안 버티어 온 것이었다. Id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orris는 Frank가 couch에서 하루 밤을 자도록 허락한다. 다음날 아침 milk상자를 몇 개 끌어들이다가 Morris는 머리의 상처가 도져서 쓰러지고 만다. Frank는 가겟 일을 맡아서 Morris보다 더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Ida는 아직도 의심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Frank가 남아있도록 거의 양해하기에 이르렀고 Frank가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週當 \$5를 Frank에게 주기로 한다. 그러나 Frank는 이 돈을 받기가 괴롭다. 수입 중에서 이미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것을 하면서 일종의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강도질을 한 것도 Raskolnikov처럼 자신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믿었던 탓이 있었고, 양심의 가책때문에 괴로워 하면

26) *Ibid.*, p. 31.

서도 일종의 쾌락을 느끼는 것이다.

Thus he settled it in his mind only to find himself remorseful. He groaned, scratching the backs of his hands with his thick nails. Sometimes he felt short of breath and sweated profusely. He talked aloud to himself when he was alone, usually when he was shaving or in the toilet, exhorted himself to be honest. Yet he felt a curious pleasure in his misery, as he had at times in the past when he was doing something he knew he oughtn't to, so he kept on dropping quarters into his pants pocket.

One night he felt very bad about all the wrong he was doing and vowed to set himself straight.²⁷⁾

良心의 苛責 때문에 Frank는 강도질해서 분배받은 \$7.50까지도 가게의 금전등록기에다가 몰래 돌려준다. 그는 또 Ward를 찾아가서 강도할 때 쓰던 권총을 돌려달라고 하나 Ward는 돌려주지 않고 Frank가 유대 처녀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고 비난만 한다. Frank 자신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Ward의 견해가 옳은 것 같기도 했다. 왜냐하면 Frank에게 Helen은 큰 매력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幻想속에서 Helen의 裸體를 상상해 보기도 하고 한번은 그녀가 옷을 벗는 것을 엿보기도 한다.

Morris가 퇴원한 후에도 Frank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그 겨울동안에 두 사람은 친밀한 이야기를 주고 받게 되며 서로 좋아하게 된다. 마침내 Frank는 Helen과도 가까워진다. 그는 그녀를 만날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주 다닌다. 어느날 밤 그들이 함께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신들의 野望을 서로에게 털어놓는다. Helen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하고 Frank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Helen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는 더 가까워진다. Helen은 Frank가 읽을 책을 골라주기도 하고 그의 말을 共感하며 경청하기도 한다. Christmas에 Frank는 Helen에게 두가지 값비싼 선물을 한다. 그녀가 그 선물을 돌려 왔을 때 Frank는 그것을 쓰레기 통에 버린다. 그런

27) *Ibid.*, p. 64.

데 아주 우연히 Helen이 그걸 보게 되고 좃어 온다. 그리고 세상 일이 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Frank를 가볍게 타이른다.

She said gently, "Frank, sometimes things turn out other than we plan. Don't feel hurt."

"When I don't feel hurt, I hope they bury me."²⁸⁾

이처럼 Frank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는 점에서 whiskey priest와의 공통점을 엿볼 수 있다. 마칩내 선물 중의 하나인 Shakespeare전집을 받기도 하고 나머지 것은 가게에 돌려주기로 들은 합의한다. Helen은 이제 Frank에게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Nat Pearl과의 date도 거절한다. Nat Pearl은 유대계 法科大學生이고 그녀의 처녀성을 뺏은 청년이었으나 그의 관심이 Sex에만 있음을 알고 그녀가 멀리하고 있는 터였다.

이러는 동안 Frank는 유대인에게 관심을 더 갖게 되고 Morris에게는 유대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 이 질문에 대한 Morris의 대답은 이렇다.

"The important thing is the Torah. This is the Law—a Jew must believe in the Law... This means to do what is right, to be honest, to be good. This means to other people. Our life is hard enough. Why should we hurt somebody else? For everybody should be the best, not only for you or me. We ain't animals. This is why we need the Law. This is what a Jew believes."

"I think other religions have those ideas too," Frank said. "But tell me why it is that the Jews suffer so damn much, Morris? It seems to me that they like to suffer, don't they?"

"Do you like to suffer? They suffer because they are Jews."

"That's what I mean, they suffer more than they have to."

"If you live, you suffer. Some people suffer more, but not because they want. But I think if a Jew don't suffer for the Law, he will suffer for nothing."

"What do you suffer for, Morris?" Frank said."

28) *Ibid.*, p. 105.

“I suffer for you,’ Morris said calmly”

Frank laid his knife down on the table. His mouth ached. “what do you mean?”

“I mean you suffer for me.”²⁹⁾

좀 장황한 引用이 되었지만 이 부분에서 suffering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져 있다. 유대인의 律法과 남을 위해 고통을 甘受하는 것이 人間답다는 Morris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한편 Helen은 Frank의 간청에 응해서 그의 방을 찾아가 애무를 교환하는 관계까지 두 사람의 사이는 발전한다. Ida는 Helen의 행동에 점점 의심 품게 된다. 어느날 밤 Helen을 뒤쫓아갔다가 그녀가 Frank에게 kiss하는 것을 보게 된다. Morris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당황하지만 Frank를 해고해 버리자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Ida는 Helen에게 Nat와 교제하도록 억지승낙을 얻어낸다. 어느날 自身の 돈마저 금전등록기에 넣었다가 Helen과의 date자금이 없음을 깨달은 Frank는 \$1를 다시 꺼내다가 Morris에게 들킨다. 전에도 이런 식으로 돈을 내쓰고 또 갚아 넣고 한 일이 자주 있었다. Morris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를 해고한다.

Frank를 기다리던 Helen은 Ward를 우연히 만나는데 그는 Helen을 겁탈하려한다. 그 때 Frank가 도착해서 Ward를 쫓아버리고 Helen은 그의 팔에 안긴다. 그런데 Frank는 전부터 Helen에게 품고 있었던 욕망 때문에 또 술에 취해 있기도 해서, 그녀를 땅에 눕히고 “Please not now, darling”하고 애원하는 Helen을 犯하고 만다. 이 때 Helen은 Othello의 최후독백처럼 “Dog-uncircumcised dog!³⁰⁾”라고 외치며 Frank를 증오한다.

이 순간부터 Helen은 自身과 남성들에게 혐오를 느끼고 Frank와 결별하려 한다.

The wooden flower reminded Helen of her unhappiness. She lived in hatred of herself for having loved the clerk against her better judgment. She had fallen in love, she thought, to escape her predicament. More than ever she felt herself a victim of circumstance—in

29) *Ibid.*, pp. 112-113.

30) *Ibid.*, p. 151.

a bad dream symbolized by the nightmarish store below, and the relentless, scheming presence in it of the clerk, whom she should have shouted out of the house but had selfishly spared.

In the morning, as he aimed a pail of garbage into the can at the kerb, Frank saw at the bottom of it his wooden flower.³¹⁾

wooden flower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음은 물론 Helen이 Frank의 사랑을 버렸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 젊은 남녀는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날 밤 Morris는 gas radiator를 틀어놓고 있다가 Frank에 의해서 간신히 구출된다. Morris가 병원으로 데려가졌을 때, Ida는 마지 못해 Frank가 그 가게에서 계속 일할 것을 허락한다. 새로 생긴 잡화점 때문에 비참할 정도로 줄어든 이윤을 보충하기 위해 Frank는 counterman으로서의 night job을 갖게 되고 모자라는 잠은 낮에 조금씩 보충한다. Helen은 Frank의 희생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를 경멸한다. Morris가 퇴원해서 가게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자 Frank를 또 해고한다.

가게의 경기는 급강하하고 어느날 Morris에게 방화상습범이 찾아와서 Morris가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그의 가게에 放火해주겠다고 제안한다. Morris는 거절하지만 그날 밤 그들에게 배운대로 celluloid 조각을 사용해서 실험해본다. 그러나 불을 지른 뒤에 겁이 나서 그걸 끄다가 거의 타죽을뻔 한다. Frank는 그 가게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었던지 갑자기 나타나서 Morris를 구출한다. 그러나 Morris는 Frank를 다시 가게에 둘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옆집의 화재사건으로 Morris는 팔자를 고치는 듯했다. Ward가 Karp의 가게에 훔치러 들어갔다가 술에 취해 실수로 가게에 불을 지르게 되고 타죽는다. 오랜 동안 Morris의 rival이었던 Karp은 Morris의 가게를 사서 술가게로 改造하겠다고 제의한다. Morris와 그의 가족들은 생각보다 많은 돈으로 그 지긋지긋한 가게가 팔리게 되어 기뻐하지만 그런 행운은 실현되지 않는다.

삼월의 마지막 날 Morris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게 앞의 눈을 치운 일이 있던 후 폐염에 걸려 죽고 만다. 그의 장례식에서 rabbi는 그가 고

31) *Ibid.*, p. 172.

통을 당하면서도 희망을 견뎌낸 참다운 Jew이었다고 다음과 같이 설교한다.

Yes, Morris Bober was to me a true Jew because he lived in the Jewish experience, ... he was true to the spirit of our life—to want for others that which he wants also for himself. He followed the Law which God gave to Moses on Sinai and told him to bring to the people. He suffered, he endured, but with hope ... He asked for himself little—nothing, but he wanted for his beloved child a better existence than he had. For such reasons he was a Jew.³²⁾

Karp은 심장마비에 걸려 가게를 사겠다는 제안을 취소한 것이다. 다시 한번 Frank는 가게를 떠맡게 된다. 그 가게의 집세를 실제보다 더 많이 지불하고 열심히 일해서 장사가 조금씩 번창해 간다. Frank는 Helen을 대학에 진학시키기로 한다. 그녀의 노여움은 풀렸지만 그의 제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말한다. Frank는 자기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빚진 것이 있다고 말하고 마침내 이틀전의 강도 두 사람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였음을 고백한다.

Frank는 끈기있게 집념을 지탱한다. 그는 가게에서 악착같이 일하고 철저히 절약해서 Ida와 또 그녀를 통해 Helen에게 생활비를 준다. 사실 그는 Morris와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가진게 없고, 거의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다시 말해 suffering과 인연이 깊은 사람 즉 Jew가 되는 것이다. suffering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4월의 어느날 그는 병원에 가서 割禮를 받고, 유대인들의 축제인 Passover가 지나서는 문자 그대로 Jew가 된다.

이상으로 이야기는 끝났다. Malamud의 作品에 나오는 主人公들은 다 심각한 고통은 받지만, 그들은 대개 平凡한 世俗적인 사람들이고, 그들의 苦行은 반드시 자발적인 것만은 아니고, 또 畚的으로 崇高한 이유때문만도 아니고, 또 반드시 큰 보상을 얻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남의 suffering을 같이 피로워하고 自身の suffering을 통해 배우는 것이 유대인다운 것이며, Frank는 Morris Bober를 통해 이것을 몸소 배우게 된

32) *Ibid.*, p. 203.

것이다.

So, even though Frank Alpine and S. Levin and Yakov Bok don't realize it, they are really looking for that authority or guide which is represented by a real or substitute Father and/or God. Frank Alpine accepts and then becomes Morris Bober.³³⁾

이야기의 끝에 암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³⁴⁾ Frank는 Bober가족이 되어, 유태인적인 생활철학을 실천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끝으로 1958년에 Malamud가 interview를 통해 밝힌 所信을 적고 이 논문을 끝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e writer...is to keep civilization from destroying itself. My premise is that we will not destroy each other. My premise is that we will live on. We will seek a better life. We may not become better, but at least we will seek betterment. My premise is for humanism—and against nihilism. And that is what I try to put in my writings.³⁵⁾

Whiskey priest나 Frank Alpine은 苦行끝에 救援을 얻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References

(By the Novelists)

- Dostoyevsky, Fyodor. *Notes from Underground*, 1864, (Penguin, 1973)
 Greene, Graham. *The Power and the Glory*, 1940, (Penguin, 1964)
 Greene, Graham. *The Heart of the Matter*, 1948, (Penguin, 1972)
 Malamud, Bernard. *The Assistant*, 1957, (Penguin, 1967)
 Malamud, Bernard. *The Fixer*, 1966, (Penguin, 1968)

33) Leslie Field and Joyce Field, *op. cit.*, p. 6.

34) Malamud의 작품은 흔히 symbolic ending으로 끝나고 있다. cf. Alfred Kazin, *Contemporaries*, Atlantic—Little, Brown Books, 1962, p. 206.

35) Leslie Field and Joyce Field, *op. cit.*, p. 7.

(About the Novelists and their Works)

(Greene)

Atkins, John. *Altogether Amen: A Reconsideration of the Power and the Glory* (an essay) in *Graham Greene*, Calder and Boyars, 1970

Evans, R.O. ed. *Graham Greene (Some Critical Considerations)*,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1967

Kunkel, F.L. *The Labyrinthine Ways of Greene*, Paul P. Appel, 1973

Koah, Suk-Goo. *G. Greene's Salvation*, The English Literary Society of Korea, No. 59

Mesnet, Béatrice, *Graham Greene and the Heart of the Matter*, Greenwood Press, 1973

(Malamud)

Field, Leslie A. and Joyce W., eds. *Bernard Malamud and the Critics*, New York, 1965

Field, Leslie A. and Joyce W., *Bernard Malamud,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Prentice Hall, 1975

Harper, Howard M. *Desperate Faith*, University of N. Carolina, 1967

Kim, Jong-Woon. "Bernard Malamud: Schlemiel and Myth", A Study of Modern American Novels, Min Um Sa, Seoul, 1979

Klein, Marcus. *After Alienation: American Novels in Mid-Century*, New York, 1965